

LNG 교역현황과 전망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교역량이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소비국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低油價의 영향으로 그동안 LNG수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지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향후 LNG교역은, 비록 장기적인 시장전망이 매우 밝기는 하지만, 급격한 증가보다는 지속적으로 원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제 LNG교역은 7個 수출국과 6個 수입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87년도 LNG의 총교역량은 560億 m³로 전년대비 94% 증가되었으며, 世界天然가스 총교역량 2,540億 m³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국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요수출국인 알제리와 인도네시아의 국제시장점유율은 각각 40%, 25%로 전체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입국으로는, 日本이 총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최대의 LNG 수입국이며, 그 다음은 프랑스·벨기에·스페인의 順이다.

한편 LNG 가격은 '86년 油價급락 이후, 판매가격의 公示油價 連動方式에서 탈피하여 시장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알제리의 LNG현물판매(Spot Sales) 제의에 의하여 현물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최대 LNG수입국인 日本의 수입가격(CIF)은 原油

價의 등락에 따라 '86년초에 \$5.0/mBtu, '87년초에는 2.9~3.2\$/mBtu, '88년 3.5\$/mBtu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알제리는 이미 西獨과 LNG현물판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自國產 LNG의 현물판매가격(FOB)을 최저 1.5\$/mBtu로 제시하였다.

'96년이후 LNG가격의 하락은 공급국에서 새로운 수출프로젝트를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소비국에서는 대체연료로서의 가스 이용확대, 특히 가스發電 이용확대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 한편, 최근 소비국들이 가스이용확대 추세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 기존의 7개 LNG 수출국들은 그들의 정책을 변경하여 自國產 천연액화 가스의 수출보급확대를 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등은 새로이 LNG수출국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특히 濠洲는 '89년부터 年間6白萬톤의 LNG를 日本에 공급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國際 LNG 교역전망은 세계의 3대소비시장인 美國, 유럽, 극동지역의 여건변동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년이내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LNG의 국제교역도 이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원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國際 LNG 交易推移

(단위 : 10억m³)

輸 出 國	1985	1986	1987	輸 入 國	1985	1986	1987
인도네시아	19.94	20.28	22.12	日 本	37.20	38.14	39.23
알 제 리 아	12.64	12.00	14.02	프 랑 스	7.86	7.67	9.36
말레이시아	5.92	6.86	7.93	벨 기 에	2.40	2.59	2.85
부 르 내 이	6.86	6.98	7.01	스 페 인	2.43	2.48	2.49
아 부 다 비	3.11	2.93	2.87	韓 國	-	0.15	1.96
美 國	1.37	1.30	1.26	西 獨	-	0.12	0.12
리 비 아	1.04	0.86	0.80				
計	50.88	51.21	56.01	計	50.88	51.21	56.06